

조선대, 해양바이오 산업 선도해 대학과 지역 발전 이끈다

조선대학교



해조류 산업화 촉진... 고부가가치화·글로벌 시장 선점 등 목표
해양실증센터·바이오연구소 등 운영... 해양 치유 전문인력 양성
지역거점 민립대학 실현... 조선대 경쟁력 세계로 확장해 나갈 것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툇, 청각...

흔히 식탁에서 볼 수 있는 해조류지만 이제 식량 자원의 역할을 넘어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 의약(의)품, 화장품 등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이하 조선대)는 생물학적·유전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해양 바이오 헬스케어 활성 소재(해조류)의 산업화 촉진,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목표로 완도군에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이하 해양실증센터)와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이하 해양바이오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해양치유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한국 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조선대는 이 두곳을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센터로 육성하고 글로벌 협업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특

히 완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 조선대가 추구하는 '지역이 대학교, 대학이 지역인 지역거점 최고의 민립대학'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선대가 운영 중인 해양실증센터는 2007년 완도군 신지면에 개관한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전라남도, 완도군이 지원한 160억원 규모의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돼 문을 열었다.

해양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 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활동을 하는 해양바이오산업에는 전문 장비, 지식, 인재, 기술 등이 필요하다.

해양실증센터에는 해양바이오 사업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해조류 기반 기능성 소재의 유효성 평가를 통한 표준화 플랫폼 개발, 식품, 의약(의)품, 화장품 등 소재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세포 배양실, 전처리실, 이화분석실, 조직처리실, 소재개발 및 보관실, 유효성 평가실, 동



조선대학교가 완도 신지면에서 운영 중인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이 공간은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이끌 중추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대 제공>

물실험실, 다목적실험실 등 총 8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실험장비와 연구시설로 다양한 시험 환경을 제공, 연구를 통한 해양 바이오 헬스케어 활성소재(해조류)의 산업화 촉진,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운영된다.

현재는 전문 연구진과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해조류 유효성 추출을 통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실증센터 근처에 위치한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는 조선대가 지난 7월부터 완도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해양바이오와 관련한 대학과 기업, 연구 기관들의 공동 협력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건강기능식품, 의약(의)품, 화장품 등 해양바이오 원료를 이용한 각종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로서 연면적 3297㎡(997평) 3층 규모로 기업 연구소 10개 실, 스타트업 30개 실, 공동실험실, 동물세포·미생물 배양실, 도서관, 대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기업연구실 1개 업체(㈜아루카), 스타트업 16개 업체(바다품에, 신지오션, 씨푸드랩, 어업회사법인가람주식회사, 예비창업(이규숙 씨), 해양

산업사회적협동조합, 완도폴, ㈜다산바이오텍, ㈜디에치바이오, ㈜아루카바이오, ㈜이노플렉스, ㈜피에스팜텍, 지아이피, 코비스, 해산, 힐링스)가 입주해 있는데 이들에게는 시설 및 장비사용 할인,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특히 해양바이오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강화), 해양헬스케어유효성 실증센터와 연계해 기능성 평가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 해양바이오 스타트업을 책임지고 육성하고 있다.

조선대는 이와 함께 해양치유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지난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 중이다.

해양치유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예정인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양치유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해양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 이론교육과 실습, 선진지 탐방 등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이론적 지식을 쌓는 해양치유와 해양자원의 이해, 전문인력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치유 요법 실습, 유사 치유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위한 선진지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과정 120시간과 심화과정 80시간, 총 200시간의 수업을 이수한 학생은 국내 해양치유관광을 운영하는 기관 취업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춘성 총장은 "해양자원의 개발로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열어 지역거점 민립대학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아울러 광주, 완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 경쟁력을 제고하며 조선대의 영역을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가 운영하는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 조선대는 지난 10월 해수부로부터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장 이준식 교수

“대학·기업·기관들과 협력 위해 장비·인프라 지원”

“해양바이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준식(사진)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장은 입주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를 위해 최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입주기업 17개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주기업에 필요한 경영모델, 개발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입주기업이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을 2024년 사업 운영에 반영해 조선대학교 'LINC 3.0 사업단 산학공동기술개발 사업' 및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 연구소는 대학과 기업, 연구 기관들의 협력을 위해 첨단연구 장비·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곳이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